

##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

여형남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 University lif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transfer student

Yeong-Nam-Yeo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여 본질을 추구하고 그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있는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다시 4년제 대학교의 3학년으로 편입한 학사편입 학생 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로 녹음테이프를 사용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이질감을 느끼게 됨, 부담감 체험, 학과에 적응됨, 선택에 대한 책임. 결론으로 간호학과에 편입한 편입생들이 기존 재학생들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해당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편입생들이 학과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편입 초기에 선수과목 수강이나 보충지도 등을 통해 전공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등 편입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and describe in depth the university life experience and the feelings of nursing students who transferred to a new nursing school, and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phenomenological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8 graduate transfer students who graduated from a 4 year university at C university and had a bachelor degree, and they then transferred into the third year of another 4 year university to study nursing. The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2018 to January 2019 by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tape-recording. The interview data was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of Giorgi.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actors: a feeling of heterogeneity, a feeling of burden, a need for adaption to the department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hoice of transferring school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the transfer students who have transferred to a nursing department to prepare a plan while still in their first school and that can be done together with their fellow future transferees so that they do not feel a sense of heterogeneity with the existing students. In order for transfer students to bear the burden of studying in the new department, it is suggested that an interven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help transfer students adapt to their major, such as providing a base for efficiently acquiring the major knowledge of the nursing profession.

**Keywords** : Department of Nursing,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Transfer Student, University Life

---

본 연구는 창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eong-Nam-Yeo(Changshin University)

email: yhn072@naver.com

Received May 22, 2019

Accepted August 2, 2019

Revised June 26,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학벌 및 학력주의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 대학사회의 위계적 서열구조에 의한 수도권 대학 및 4년제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에 따라 대학 간 학생들의 편입 현상이 증가하여 전국의 대학 편입생 수는 35,000명을 훨씬 넘어섰고[1], 간호학과 또한 예외는 아니다.

편입은 이미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졸업한 학생이 기존의 대학, 학과 선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목적에 따라 학과나 전공을 재 선택하거나 명성이나 인지도가 높은 대학, 학과로 옮기는 것이다[2].

대학생활의 적응이 학생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임[3]을 고려할 때, 편입생이 소기의 학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낯선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사, 수업, 인간관계, 졸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등[4] 해당 기관에서의 대학생활에 적응한 상태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중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즉 일반학과 편입은 보통 2년이 소요되나, 간호학과 편입은 3학년부터 시작되는 임상실습에 대비하여 전공기초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제 상 3학년으로 편입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3년간의 편입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직의 교육과정은 타 전공에 비해서 학습량이 과중하며 임상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한다. 학생은 이론이나 실습 교육과정에서 독특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확립해간다. 그러나 편입생의 경우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학문적 정체성을 지닌 채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은 이들이 기존 학생들과 융화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함으로써 보건의료 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가 된다[5]. 또한 편입 첫 학기는 혼돈과 당황, 걱정 속에 학교에 매이면서 학업과 학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있다[6].

편입생이 대학생활 동안 겪는 학업과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간호교육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간호교육기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간호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과 관련된 실습과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타 학과 또는 유사학과를 전

공한 편입생의 경우 전공 교과목 수강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존 학생들이 전공과목 수강과 수업 이외활동 등을 통해 이미 구축한 집단에 동화하는 일 또한 편입생에게 용이하지 않다.

사회적 요구 및 추세에 따른 급격한 편입생 수의 증가는 대학으로 하여금 이들이 편입한 대학에 잘 적응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간호학과 편입생은 학과 특성 상 타 학과 편입생들보다 적응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이 짐작되나, 선행연구들은 편입생들의 실태조사, 편입 요인, 학업 성취도, 학업 만족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7,4,8,9,10]. 하지만 간호교육자의 입장에서 편입생들의 삶을 단편적이고 분절적이 아닌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편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경림 등[11]은 수도권 일 개 대학의 편입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으로 편입 체험을 조사하였다. 김영경 등[5]은 세 개 지방대학의 편입생을 대상으로 정체성 변화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편입생들의 삶에 대한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만으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도가 불가능하며, 대학에서의 진정한 학생 지도, 특히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편입생 지도는 지도교수가 학생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 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나 통찰을 얻기 위해 맥락을 상실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적연구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서술하여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대학생활 적응 및 올바른 학업 성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기 위하여 Giorgi[12]의 현상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 2.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C시에 있는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다시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한 학사편입 학생 8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자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C 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 편입생 중 본 연구자의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자 소개와 연구의 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할 것이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과 연구과정 중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참여자와 먼저 전화통화로 면담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였다. 시간은 참여자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였고, 면담 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참여자 소속대학의 빈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 후 면담내용은 현장기록 노트에 메모하거나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당일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기술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 질문은 ‘간호학과에 편입한 이후에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참여자들의 진술을 경청하면서 공감을 표하고 진술이 더 자유롭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는 마지막 참여자 이후부터는 유사한 개념이 도출되어 8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이후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은 개인별 각각 2~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50분에서 90분이었다.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전화나 다음 면담 시간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CSIRB - 2018019)을 얻은 후 수행하였다.

###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분석 방법 중 Giorgi[12]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담 내용과 필사자료를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참여자가 표현한 기술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면서 구분한 의미단위를 학문적용어로 전환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일관성 있는 기술문으로 통합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였다.

###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13]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2명에게 분석 내용을 읽어주었고, 본인이 진술한 경험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시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의 결과에 대한 적합성과 제 3자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결과가 의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2명에게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분석된 연구결과에 의미를 공감 한다는 것으로서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면담자료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분석한 의미에 관하여 연구자들 간에 지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간호학과 편입생에 대한 자신의 가정, 편견, 선 이해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담

내용을 들으면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진행이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iorgi[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구조화하여 본질적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현상학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8명의 참여자로 부터 심층면담을 통하여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4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은 '이질감을 느끼게 됨' '체험하게 되는 부담감', '적응에 도움이 됨', '선택에 대한 책임감'등으로 나타났다. (Table 1).

#### 3.1 이질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의 간호학과에 편입생이라는 이름으로 입학하게 되면서 일반 재학생들과의 연령차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 대학 생활과는 다른 환경과 수업 분위기, 학생들의 행동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생이란 신분인데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안정된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로부터 위축감을 느끼게 되었다.

##### 3.1.1 관계형성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재학생들과의 연령차로 먼저 다가가기를

힘들어 하였고, 재학생들도 편입생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런 재학생들과의 거리감이 학교생활에 제일 힘들어하였다. 편입생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일반 재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죠, 그렇다고 나이 많은 편입생들에게 학생들이 먼저 다가오기는 더 힘들었겠죠. 학교 생활하면서 사람관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힘들고요. (참여자 1)*

*입학생들과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인지 저도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마찬가지로 신입생들도 편입생들이 부담스러워 서먹했어요. 하지만 재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또래들은 무리집단이 있다 보니 편입생들을 어려워하고 조별과제도 같이 하는 걸 부담스러워 했어요. (참여자 2)*

*편입생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방인 느낌은 받았죠. 그리고 먼저 말 걸어오는 학생들은 없고 공지사항이 올라오면 먼저 편입생이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저도 재학생이었다면 부담스러워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참여자 7)*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많이 부담스럽고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교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게 너무 놀랐고 이해가 되지않았어요. (참여자 2)*

Table 1. University lif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transfer student

Sub-constituents	constituents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	Feeling of heterogeneity
Difficulty in adaptation	
Becoming a Gentile	
Burden of curriculum	A feeling of burden
Economic burden	
Physical burden	
Form an intimate relationship	Adapted to department
Academic adaptation	
Be willing	
The path of the nurse I chose	Responsibility for choice
Plan your future after graduation	
Having a new hope	

편입하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스템 적응이 안되더라  
꼬요. 제가 대학교 공부하던 시절과 다른 시스템요... 저  
희 때는 과제가 지금의 형태가 아닌 개별과제가 많았고  
모든게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지금은 ppt 발  
표 등 모든 게 낫설고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게 힘들었어  
요. (참여자 5)

### 3.1.3 이방인이 됨

참여자들은 주위 친구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니며 안정  
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생인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어졌다. 그리고 예전에 다녔던 사회 친구로부터 응  
원보다는 핀잔을 받으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는 자신  
을 후회하게 되면서 소속감이 없는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게 되었다.

제 주위 친구들은 공무원 취업 준비 중인 친구 몇몇  
빼고는 대부분 직장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 만나  
면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제가 위축 되어져요. (참여자 1)

편입하기 전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쪽 복지사로 근무  
했어요. (중략) 예전 직장동료들 만나면 하나같이 나이가  
 많으면서 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이나 하지 뭐한다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응원보다 핀잔을 많이 받아 그  
런 모임에도 나가지가 싫어지더라고요. (참여자 6)

## 3.2 부담감 체형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공부가 생각했던 거 보다 훨씬  
힘들고 쉴 틈 없는 교육과정으로 부담스러워하며, 졸업  
후 다시 공부하는 거라 경제적인 부담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전 대학시절 공부했던 때와는 달리 나이가 있어  
무엇보다 공부를 따라가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  
였다.

### 3.2.1 교육과정의 부담감

참여자들은 틀에 박힌 생활과 일반적인 강의 전달식  
교수법과 기계적인 암기위주의 학습법에 적응하기 어려  
워하였다. 그리고 공부분량이 너무 많아 여유가 없었으  
며, 학과 교과목 외 부수적인 과제들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하였다. 특히 3학년으로 편입하면서 1,2 학년 두 학년을  
공부해야 하며, 1,2학년들과 공통되는 과목인 해부, 생  
리, 병리, 약리 등 기초간호에 대한 선행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학과 공부 따라가길 힘들어하였다.

모든 간호학과가 비슷하겠지만 고등학교 같이 틀에 박  
혀 시간표가 짜여져서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들었어요. 그  
리고 틀에 박힌 생활과 공부 분량이 적응하기 어려웠어  
요. (참여자 2)

입 후 1년이 제일 힘들다는 말이 있던데 아마 적응하  
는 부분도 힘들고 특히 3학년으로 편입하면서 1, 2 학년  
두 학년을 공부해야 하는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치를 때도 1, 2학년 교과목을 시험보야 하나까 2  
배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저희들이 3학년으로 편입하고 공부는 1, 2학년들과  
공통되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이 힘들어요. 해부,  
생리, 병리, 약리 등 기초간호가 많이 힘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 6)

편입생이라면 누구나 힘들음 알고 편입했지만 수업방  
식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은 진도 나가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입식으로 강의 하시고, 저는 이해도 되지 않는  
데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참여자 7)

### 3.2.2 경제적 부담감

참여자들은 졸업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므로 예전  
에 빌렸던 학자금 대출은 갚았지만, 다시 학자금 대출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적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성적 장학금 260  
만원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학과 등록금이 330만원이  
었으니 70만원만 내고 공부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등록  
금을 받고 나머지 생활비는 방학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생  
활하고 있어요. (참여자 1)

예전 대학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했고  
3년 다니면서 학자금대출을 갚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받고 분기별로 5만원만 내고 학교 다  
니고 있어요. (참여자 2)

### 3.2.3 신체적 부담감

참여자들은 예전에 대학생이었던 때와 달리 학과 공부  
와 학과 일정을 따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였고,

재학생들과 경쟁하여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신체적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해는 확실히 잘되는데 암기가 안되는 게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에 이해는 되는데 그걸 글로 적으려고 암기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5)*

*나이가 있다 보니 학과공부와 학과 일정을 따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역부족이었어요.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 밤샘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생활이 안되요. 나이 때문에 체력이 못 견디더라고요. (웃음) (참여자 6)*

### 3.3 학과에 적응

참여자들은 낯선 환경에 학과 공부가 힘들었지만 재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간호학과에 편입하기 전 공부하였던 경험들이 간호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힘들 때 같은 편입생들과 가족의 지지로 학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3.3.1 친밀한 관계 형성

참여자들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재학생들과 실습 조로 편성되어 조별 과제 활동으로 정보도 공유하며 서로 챙겨주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년 지나고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학과에 적응하게 된 것 같아요. 실습조로 편성되어 실습하면서 조별과제를 통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챙겨주게 된 것 같아요. 실습 후 일반 학생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2)*

*아마 제가 재학생들보다 2살 많다고 멀리했으면 재학생들이 다가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재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질문하고 공유하려고 했어요. (참여자 3)*

#### 3.3.2 학업에 적응

참여자들은 예전 대학에서의 전공공부와는 달리 간호학 공부를 재미있어 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간호조무학원에서 1년간 공부했던 경험과 병원에서의 경험이 학과공부를 이해하고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간호학과가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과제가 많고 공부분량이 많은 건 있지만 하나하나 재미있어요. 공부가 재미있어 출석도 잘 하고 성적도 만족할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학과공부는 나이가 있고 병원 제통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니 교수님들의 수업이 이해가 잘되었고 임상에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 하시는 거구나 하고 재미있었고 수업 따라가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참여자 5)*

*아무래도 조무학원에서 공부한 경험과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들이 그나마 일반학생들과 일반편입생들보다는 저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여자 7)*

*간호계통으로 공부하고 병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인지 수업이 재미있고 실습과목도 재미있어요. (웃음) (참여자 8)*

#### 3.3.3 버팀목이 됨

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편입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화합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과 공부와 학과 생활이 힘들 때 마다 가족들의 지지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집에서도 간호학과 편입한 걸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마다 엄마와 아빠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럴 때 마다 많은 힘을 얻게 되죠. (참여자 2)*

*하지만 편입생들이 많아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서로 많이 의지했어요. 편입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뭉쳐지는 힘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5)*

*저는 아들이 있는데 엄마랑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뒷바라지를 잘해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는 것 같고요. (참여자 6)*

### 3.4 선택에 대한 책임

참여자들은 간호학 공부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본인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

였고 졸업 후 연령차이로 인한 취업 시 불이익이 걱정이 되었지만 좋은 간호사가 되고자 한 본인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 3.4.1 내가 선택한 간호사의 길

참여자들은 예전 대학 졸업 후 여러 방면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안정된 직장을 위해 먼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 생활을 경험하다 간호학과에 편입하게 되었다. 또한 원래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여러 사정상 간호학과에 입학하지 못하고 대학졸업 후 다시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간호학과에 편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래에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간호학과에 편입한 경우 등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편입에 대한 본인들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온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중략) 제가 하고 싶은 간호학과 공부라 후회는 없지만 빨리 간호학과에 오길 못했던 게 아쉬워요. (참여자 1)*

*예전에 일했던 직장은 아예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간호조무학원을 근무해서 조무사 자격증을 땀어요. 간호조무사로 일반 병원 병동에서 6개월 일했는데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들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간호사 공부를 권유해서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참여자 2)*

*원무과 일을 하다 보니 원무과 일보다 간호사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비전이 있을 것 같아 간호학과에 편입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3)*

*구몬학습지 선생을 4년 하다가 올바른 직업을 찾기 위해 간호조무학원에 등록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병동에서 RN들과 있다 보니 욕심이 생겨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7)*

*남편이 목회를 하다 보니 저희 부부는 조기 은퇴 후 선교하러 나갈 목적이 있어요. (중략) 아무래도 초기 선교는 항상 교육과 의료가 함께 가는 것이라 생각되어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중략)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간호학원에서 선생님님이 공부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간호학과를 추천해 주셨어요. (참여자 5)*

### 3.4.2 졸업 후 미래를 계획

참여자들은 재학생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많아 취업 시 연령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편입한 간호학과에서 재학생들과 경쟁하며 받은 성적으로 과연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졸업 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였다.

*졸업 후 취업 시에는 나이가 많다 보니 취업도 걱정이었어요. 졸업하면 29살인데 같이 졸업하는 젊은 취업생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여자 1)*

*솔직히 졸업하고 나도 걱정이 됩니다. 졸업하면 30살인데 나이도 많고 성적도 좋지 않다 보니... 불러주는 곳에 취업하고 싶어요. 급성기 병원 아니더라도 요양병원에 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참여자 2)*

### 3.4.3 새로운 희망을 가짐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간호학과 편입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전공공부와 임상실습까지 병행해야 하는 학과공부를 이겨내기 위해 체력도 관리하면서 뚜렷한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였다.

*학교 졸업 후 저는 대학병원에 취업하고 싶어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바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간호학과에 편입한 게 제 인생에 있어 너무 잘 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참여자 3)*

*선교 나가서 간호사 직분으로 혼자서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영역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목적의식이 있다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5)*

*체력관리하면서 같이 편입한 학생들과 잘 화합하면서 학과 공부 잘 마칠 겁니다. 그리고 졸업 후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노인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복지계통에서 일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 6)*

#### 4.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과정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 구조는 '삶의 방향을 전환함'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 편입한 편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재학생들과 연령차가 나고 편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전 대학 생활과는 다른 환경과 수업 분위기, 수업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생이란 신분인데 졸업 하고 직장을 다니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위축감을 느끼며 학생신분과 사회친구들로부터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편입생들은 새 학교 새 학과에서 편입생이라는 학년에 속하게 되므로 기존 재학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재학생들과의 거리를 경험하였다. 이는 편입생 자신들이 신입생처럼 취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Townsend [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Townsend [14]의 연구결과는 편입생이 기존 학생 대부분의 친분관계가 이미 형성된 곳에서 친구를 찾고, 교우관계를 형성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만 편입생 자신이 새 학교에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질감을 느낌'을 경험하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또한 17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편입생에 대한 기관적 접근을 연구한 결과, 대학에서는 편입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 대학의 부학장은 '일단 학생이 수업과정을 시작하면, 편입생으로서 자신의 라벨을 유지한다기보다는 특정 대학의 학생이 된다.'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15]와 상이하였다 또한, 공과대학 편입생은 '학우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가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나타나 만족함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10]와도 상이하였다. 편입생이 편입한 새 학교에 적응함에 있어 동료로서의 편입생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편입생 선후배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되 기존 재학생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해당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편입을 준비하면서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의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였지만 실제 부딪혀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참여자들은 방대한 학습의 양 선수지식 부족 영어로 된 의학 용어, 일방적인 강의전달식 교수법과 기계적인 암기 위주

의 학습법 등 이전 학과에서 보기 힘든 지식 습득과 평가 과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편입생의 학업성취도는 기존 재학생에 비해 낮으며 편입생에 대한 대학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성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16]. 김건희와 황은희[6]에서도 학문보다 면허를 위한 학원 같은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경험이 보고되었다. 간호학생의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현재 다수의 간호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전 대학생이었던 때와 달리 학과공부와 학과 일정을 따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였고, 재학생들과 경쟁하여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신체적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신경림 등[11]에 의하면 편입생은 임상실습 병행 기초지식 부족, 편입생에 대한 제도적 배려의 부족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며, 다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공공부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한 편입생은 선수과목, 이전 대학과 편입대학의 커리큘럼의 차이 수강과목이나 교수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업성취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15].

따라서 편입 초기에 선수과목 수강이나 보충지도 등을 통해 전공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편입생들은 학기 중 이수하는 학점이 포화 상태이므로 방학을 이용한 계절 학기나 온라인 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선배 편입생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도록 멘토-멘티의 연계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는 기존학생들과 거리감을 느꼈지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였고 편입생끼리의 지지로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게 되었다. 이는 일반입학생의 입장에서 편입생은 자신과 상이한 경로로 들어온 나이 많은 학생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편입생의 적응전략은 재학생과의 적극적인 관계형성과 편입생끼리의 동류집단 네트워크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1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편입 초기는 편입생끼리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 편입생 울타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김건희와 황은희[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재학생들과 실습조로 편성되어 조별과제 활동으로 정보도 공유하며 서로 챙겨주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3학년 때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은 전문지식 습득뿐 아



나라 편입생의 무리에서 벗어나 기존학생들과 교류증진과 학과적응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편입생에게 임상실습은 전공에 대한 확신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기존학생들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였다. 그러나 임상실습 이전에 조기 학과적응을 촉진하고 학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 편입생과 기존 재학생들 간에 교류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입학 직후부터 수업에 다양한 조별활동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유아교육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염지숙[1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소모임 활동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같은 조 안의 학생들끼리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경림 등[11]도 소규모 그룹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이 차이가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기도 하므로 편입생을 실습 조에 배정함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복학생이나 나이 많은 재학생과 함께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간호사의 꿈, 적성, 취업, 선교 등의 이유로 간호학과에 편입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신경림 등[11]의 연구에서도 편입생들은 과거에 자신과 맞지 않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오래 숙고하게 되었으며 적성 재능 취업, 임금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삶 등을 고려한 결과, 간호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간호학과 편입 동기는 적성, 취업, 자기계발로, 자기부합적이며 현실적이고 진취적 이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간호 전공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공의 재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타 학과로부터의 편입생이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전반적인 배경에 부합되며[18], 간호학과 편입생은 학과 선택 시 보다 자기 결정적이고[5], 일반 입학생에 비해 전공 만족도와 충실도가 높았다[20]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편입생들이 이렇게 전공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편입으로 인한 자부심, 새로운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 편입 준비에 소비된 시간, 또래에 비해 졸업 및 사회진출이 늦어진다는 불안감 등이 있었으며[16],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통한 방향의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험이 나타난 김건희와 황은희[6]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편입은 새로운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제를 제기하지만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전공에 대한 만족 충실함은 새로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간호학과 편입생은 대학 편입 후 일정기간 어려움을 겪지만 대개 자신의 편입 결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20] 또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생들이 인생설계에 있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편입을 결정하지만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과 기존의 안정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힘든 편입생활 속에 이전 생활로의 회귀를 고려함을 뜻한다. 신입생 보다 높은 편입생의 충도 탈락률[21] 감소나 학생의 올바른 진학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C시에 있는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다시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한 학사편입 학생 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은 '이질감을 느끼게 됨', '체험하게 되는 부담감', '적응에 도움이 됨', '선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축약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편입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서 편입하면서 편입생이라는 학년 속에서 기존 재학생들과의 이질감을 경험하였으나 이들과 친밀하고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편입생 선후배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되 기존 재학생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해당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예상과 다른 학과 분위기, 수업시간에 따라가기조차 벅찬 방대한 학습의 양, 낮은 교수법 등 이전 학과에서 보기 힘든 지식 습득과 평가 과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학과공부와 학과 일정을 따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였고, 재학생들과 경쟁하여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신체적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입 초기에 선수과목 수강이나 보충지도

등을 통해 전공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간호사의 꿈, 적성, 취업, 선교 등의 이유로 간호학과에 편입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처럼 편입생을 간호정체성이 불확실하고 조금 부족한 인력자원이 아니라 새로운 간호의 발전을 견인할 잠재적 인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간호학과 편입생을 위한 대학생 활 적응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간호학과 편입생을 위해 계절 학기나 다양한 교수 학습매체를 통해 선수과목 강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각 학년별 편입생들의 경험과정을 파악하여 학년별 간호학생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

- [1] Educational Statistics Annu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2011.  
[http://std.chedi.re.kr/publ/publFile?survSeq=2011&menuSeq=3894&publSeq=2&menuCd=34468&menuId=1\\_2\\_2\\_12&itemCode=02&language=en](http://std.chedi.re.kr/publ/publFile?survSeq=2011&menuSeq=3894&publSeq=2&menuCd=34468&menuId=1_2_2_12&itemCode=02&language=en)
- [2]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 [3] H. Seo,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New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Their Campus Lif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5, no.1, pp.361-391, 2010.
- [4] Y. J. Oh, "A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of Transfer Students after Transfere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4, no.2, pp.449-472, 2006.
- [5] Y. K. Kim, M. O. Cho, J. H. Yang,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6, no.1, pp.15-31, 2005.
- [6] K. H. Kim, E. H. Hwang, "Transfer-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first semester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crisis overcome",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8, no.5, pp.123~142, 2012.
- [7] J. S. Yeom,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4, no.2, pp.239-263, 2009.
- [8] S. L. Lee, E. K. Le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odel & counseling program", 1998. Subjective Education Research, vol.2, no.2, pp.147-168, 1998.
- [9] J. H. Rhie, "A Comparative Analysis of External Transfer Students' GPA and Native Students' GPA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University's Transfer Admission Policy,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14, no.2, pp.41-65, 2004.
- [10] J. J. Choi, "A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and the Campus Life Adaptation of Transfer Student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ABEEK",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vol.14, no.2, pp.3-12, 2011
- [11] Sin, G. L. Sin, Cha, E. J. Cha, Y. H. Kim,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6, pp.722-730, 20
- [12] A. Giorgi,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ed.), Symposium of Nursing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 2004.
- [13] E. Guba, Y. Lincoln,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1989.
- [14] B. K. Townsend, "Feling like a Freshmen Again: The Transfer Student Transition",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vol.14, pp.69-78, 2008.
- [15] B. F. Tobolowsky, B. E. "Rationalizing Neglect: An Institutional Response to Transfer Studen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83, no.3, pp.389-341, 2012
- [16] B. Y. Park, "College students", transfer and countermeasures, KEDI Position Paper, vol.6, no.3, pp.1~32, 2009.
- [17] J. S. Yeom, "A study of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4, no.2, pp.239~263, 2009.
- [18] Kim, K. J. Kim,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transfer collegi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 Ji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19] M. S. Kim, S. J. Lee, Kim, S.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criteria for college admission decision and student's college achieve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8.
- [20] C. Cameron,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a Colaborative Bacalaureate Nursing Program", Community Colege Review, vol.3, no.2, pp.2-4, 2005.
- [21] A. C. McCormick, "Swirling and Double-dipping: New Paterns of Student Atendance and their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vol.121, pp.13-24, 2003.

여 형 남(Yeong-Nam-Yeo)

[정회원]



- 2010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간호학 전공(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인간호학 전공(간호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 종양, 건강증진, 재활간호